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夏目漱石의 『こころ』

-<私>를 중심으로-



2007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慧 珍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夏目漱石의 『こころ』

-<私>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崔 蓮 姬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慧 珍

朴慧珍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年 6月



主 審 尹 一 (印)

委 員 崔 蓮 姬 (印)

委 員 金 祥 圭 (印)

목 차

* Abstract.....	ii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2
II. 본론	10
1. <私>와 先生의 관계	10
1.1. 동등한 관계로의 발전.....	10
1.2. 先生의 유서와 <私>	33
2. 「兩親と私」에서의 <私>	46
2.1. 가족과 타인	47
2.2. 시대상황과 죽음의 의미	56
III. 결론	63
참고문헌	70

A study on 『Kokoro』 of Natsume Souseki

-Focus on <Watakushi>-

Park Hye J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dissertation, development progr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atakushi> and Sensei is analyzed regarding to Natsume Souseki's 『Kokoro』 for <Watakushi>.

It is easily considered as <Watakushi> as a character who's simply describing the happenings, However, it is quite recognizable after see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i and <Watakushi>, that <Watakushi> is also an main character.

Sensei, who had always had loneliness and roughness in his mind, become to open his heart for the first time, thanks to relationship with <Watakushi>, after K's death, Succeeded to make his dream "believing in others, at least one", come true. <Watakushi> is a innocent and sincere character, which reminds Sensei of himself, Sensei become to believe one person because he met <Watakushi>.

Thus, <Watakushi> works not only as effected by Sensei, but also as an active character who's solving the main problems. And this type of <Watakushi>'s character contributes to one of the reasons which makes Sensei to confess about his past. The sincerity of <Watakushi>'s will to learn from Sensei's own life, makes Sensei to give his past as testament to <Watakushi>. <Watakushi> is a serious character who's given a faith right before Sensei tried to abandon his mind's roughness, and wants to learn a lesson from his. Also he can be said that has most powerful impact on Sensei's change by making Sensei to give story about his past.

Next, in 「Parents and I」, relation between Sensei and <Watakushi>, and that of <Watakushi> and his family is described. After knowing Sensei, <Watakushi> thinks his parents illiterate and silly, and compares Sensei and his father. On one hand he feels sorry for his father being sick, on the other hand he feels confused between the two, his family and the others. However the death of Sensei, which occurred at the same time with his father's death, makes <Watakushi> to leave for Tokyo, and persue mental

relations.

And the deaths of iconic features of that time-the emperor and the general-are described as well. Their death can be considered as a sign of an era. But it is quite irrational to think it only as a sign of the Meiji's End. The death of the emperor and the Nogi general, is the opportunity to Sensei's suicide which gives Sensei who's been longing to abandon his sufferings. Sensei's death means that Sensei has been effected from contemporary circumstances, even though he had tried to neglect it after K's death. Moreover, because of this, as he promised before this death, he gave his past story as a testament to <Watakushi>. In the mean time, father's condition gets worse as the emperor's, so father considers his condition same as The emperor's. Most of the part features vividly of the era. The circumstances of era becomes a motive of Sensei's death, but for <Watakushi>'s father, it means his own condition. Accordingly, the death of Sensei's, father's, The emperor's and the general's can have each individual meaning and at the same time, they blend with the social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 relation between Sensei and <Watakushi>, can be explained as the contradiction of the brain and the heart, which has been described most importantly through out this dissertation.

<Watakushi> has effected by Sensei's knowledge and ideology after meeting Sensei,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lation is made by brain, yet it is better to analyze theirs relation as a mental thing, because they communicate by their heart. <Watakushi> is considered as a simple narrator but the only character who Sensei can open his mind.

Hence the title 『Kokoro』 is the signage of the heart between Sensei and <Watakushi>, and also it's the biggest reason to the changes of the both. Like this, <Watakushi> leads the story by unfolding and narrating it, and also actively leads meetings with Sensei, finally and solely, achieves to change Sensei's mind.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夏目漱石의 『こころ』¹⁾는 1914년 4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東京과 大阪의 朝日新聞에 연재된 소설이다. 「先生と私」 「兩親と私」 「先生と遺書」의 3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과 애고이즘의 문제를 자기부정에 빠진 지식인의 고뇌를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간행 후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에게 읽히고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작품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세기 전에 완성된 작품이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한 주제와 정교한 심리 묘사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こころ』의 연구 주제로는 주로 등장인물들의 애고이즘, 死生觀, 여성觀, 금전觀, 죄의식, 시대상황, 근대의 지식인상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こころ』는 선생의 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주로 선생이라고 여겨져 왔고, 자연스럽게 <私>는 소설의 語り手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신의 과거를 부인에게조차 숨겨왔던 선생이 타인인 <私>에게 자신의 과거를 유서로 고백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된다. 때문에 <私>의 역할에 주목하여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私>는 선생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물이 아니라, 선생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인

1) 1914년 9월 17일 인쇄, 20일 岩波書店에서 단행본으로 발행.

물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先生と遺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구에서 벗어나, <私>가 「先生と私」와 「兩親と私」에서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私>가 語り手로 등장하는 「先生と私」와 「兩親と私」는 선생의 과거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자 바탕이지만, 선생의 과거가 선생만이 소유한 것에서 타인인 <私>와 공유하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또 선생의 비밀을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私>이기도 하기 때문에, 「先生と遺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私>가 선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는 양상과 <私>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선생과 <私>의 관계에 관한 논문으로는 松本寛의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それならば「先生」の自殺を不可避とする決定的な動機とはいったい何なのであろうか。結論を先にいえば、それは、この作品の上巻「先生と私」に描かれている「私」という青年との出逢いである。²⁾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松本은 선생의 자살에 불가피한 결정적인

2) 松本寛『夏目漱石—現代人の原像』「第五章『こゝろ』—<自分の世界>と<他人の世界>のはざままで—」, 新地書房, 1986년, pp.173-174

동기를 <私>라는 청년과의 만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인용문에서는 선생이 유서를 쓰는 행위를 죽음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先生の遺書」は單に「先生」の秘密の種明かしのために必要だったのではなくて、その遺書を書く行爲そのものが、「先生」の<他人の世界>に對する最初の本格的なかわりだったのであり、同時に「先生」の死のいわば不可欠な構成部分だったのである。³⁾

즉 선생이 유서를 쓰는 행위 그 자체를 「타인의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관인 동시에 죽음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생의 자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先生」には、自分をありのままの姿で<他人の世界>に對立させ、その對立の結果を眞正面から受けとめること、つまり告白して自己を抹殺する以外に取るべき方法がなくなっているのである。⁴⁾

선생이 타인과의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백 하여 자기를 말살하는 이외에는 취해야 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생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타인의 세계」에 대립시켜 그 대립의 결과를 정면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고백과 자기 말살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선생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私>라는 인물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私>를 선생의 자살을 촉발시킨 작용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3) 前掲注 2, p.181(본고의 밑줄은 논자에 의함.)

4) 注 3과 동일.

つまり「先生」の自殺は、明治天皇崩御一乃木大將殉死による「明治の精神」の終焉の意識というような別個の動機を待つまでもなく、「私」が「先生」の＜自分の世界＞に近づきその内側を覗きこもうとした時に避け難いものとなったのであって、(中略)

「私」という青年は、單に「先生」の物語の語り手というだけでなく、無意識のうちに「先生」の自殺を促した重要な作用者であったことに私たちは氣づかないではいけないのではあるまいか。⁵⁾

<私>가 단순한語り手の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은 논자와 일치하지만, 타인과 대립했을 때의 선생이 취하는 방법으로써 유서를 선택했다고 하고 <私>를 선생의 자살을 촉발시킨 인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私>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죽을 생각을 해왔다는 사실을 후에 유서에서 고백한다. 때문에, 유서가 선생 자살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고 <私>가 무의식중에 선생의 자살을 재촉했다는 것은 증명하기 힘든 것이다. 이 부분은 본론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私>의 「眞面目」에 초점을 맞추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해 변화한 선생과 <私>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김정훈의 논문 역시 선생의 죽음과 <私>를 연관시키고 있다.

『마음』에서의 「나」는 이야기를 통제하거나 사건의 외부관찰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담론의 주체로서 모든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⁶⁾

5) 注 3과 동일.

6) 김정훈 「『나』를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 - 『마음』 再讀 -」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년, p.132

<私>의 능동적인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논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私>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으나, <私>와 선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물론 「나」의 존경대상인 「선생」의 「유서」는 「나」에게 절망감을 현실화시키고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 「유서」는 「선생」의 자살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나」가 「선생」에게 친밀감을 느낄 만큼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다면 「유서」를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동시에 「나」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선생」의 과거이야기를 현재시점에서 들려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선생」은 「나」를 통해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고 「나」는 「선생」을 통하여 현재의 「나」로 소생한 것이다.⁷⁾

위의 논문 역시 앞서 살펴본 松本와 같이 <私>를 선생의 자살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유서가 선생의 자살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생은 죽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私>에게 자신의 과거의 고백을 유서의 형태로 쓴 것이지, 유서를 썼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선생의 유서는 선생의 과거의 경험을 <私>에게 고백하는 편지로, 선생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유서라는 형태가 된다. 즉 선생의 유서는 <私>라는 존재에 의해 남겨지게 되었지만 선생의 죽음은 <私>의 존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私>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유서에서도 명백히 알

7) 前掲注 6, p.137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정훈은 선생이 <私>에게 유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친밀감」과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선생과 <私>는 각각 단독의 인물이고 독자적 인격을 지닌 인격체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면 그 대상이 반드시 <私>가 되었을 이유는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선생은 <私>라는 청년에 대해 단순한 친밀감 이상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오로지 <私> 한 사람에게 과거를 고백하리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머리가 아닌 마음 「こころ」에서 우러난 태도로 여겨진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私>와 「眞面目」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 작품 속에서 「兩親と私」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宮井一郎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漱石は小説のプロットとしてはあまり必要でない「兩親と私」の一篇を、わざわざ主篇である「先生と遺書」の前に置いた意図はきわめて明瞭である。(中略)

「先生」の自殺には主因としてKへの贖罪があり、直接の動機として明治天皇の崩御による「明治の終焉」がある。⁸⁾

宮井는 「兩親と私」를 선생의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와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清水孝純는 「兩親と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そしてそこに現れてくるのは、他ならず、急激な近代化への移行と共

8) 宮井一郎 『漱石文學の全貌』 下巻 「3. 『心』」, 國書刊行會, 1984년 5월, p.114

に、近代國家としての陳痛に苦しむ明治の時代の相貌である。

この「中」の部分には、そうした近代としての明治のかかえた根本問題が扱われ、そしてそれは、實は「上」「下」の部分を支える基層をなしている。⁹⁾

즉 清水는 「兩親と私」가 작품 전체를 흐르는 근대화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의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근대화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兩親と私」에 나타난 고향과 東京의 비교, 대조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보고 있다. 작품 속에서 선생과 K 모두 고향이 시골이며 그들은 근대화에 의해 농촌 이탈을 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극적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주된 근거로 파악하고 있었다.¹⁰⁾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은 작품의 배경으로써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선생의 자살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지만 선생과 K의 내면 갈등과 비극은 오히려 결여된 가족 즉 혈연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兩親と私」는 시대 상황과 <私>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선생에게는 결여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써 <私>와 선생의 정신적 관계와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先生と私」에 이어 계속되는 <私>와 선생의 관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선생이 유서를 <私>에게 보내기 전까지의 상황 또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森嶋邦彦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죽음을 시대 상황에 따른 각 세대 간의 상계를 일탈한 행위로 보고 있다.

9) 清水孝純 「『こゝろ』 - 『明治の精神』 覺書」 『文學論輯』 28号, 1982년, p.31

10) 前掲注 9, p.30

中編の「私」の父の死の意味は極めて重い。倫理的規範として自然に
培われた乃木殉死への共鳴は、無垢だという点において尊いのだ。そ
れはそして主人公の「殉死」として意義付けられた共鳴とは基底を共
有するものであるといえよう。¹¹⁾

森嶋 또한 각 세대의 죽음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으며, 선생의 자
살의 이유나 동기를 「明治精神」 또는 「乃木大將の殉死」로 파악하여 <私>
의 아버지의 죽음과 선생의 죽음이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私>의 아버지의 병세의 추이에 明治時代가 끝나가는 시대적 흐름의
정황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¹²⁾.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兩親と私」를 시대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치로 파악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등장인물들의 죽음을 연관 지어 파악하
고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큰 틀 이외에도 「先生と
私」에 이어 <私>가 語り手로 등장하면서 선생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
고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私>는 선
생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선생을 떠올리고 편지를 보내
며 무의식중에 아버지와 선생을 항상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 부
분에서는 선생과의 교제 후 변화한 <私>의 모습에도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선생이 타인인 <私>에게 유서를 보내는 것과 위독한 아버지를 뒤
로 하고 이미 죽은 선생에게 향하는 <私>의 모습을 통해 선생과 <私>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선생과 <私>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타인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인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1) 森嶋邦彦 「漱石『こゝろ』序論」 『日本文芸研究』第15卷, 1980년11월, p.59

12) 前掲注 11, p.58

또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죽음이 선생의 자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선생의 과거 고백이 유서의 형태로 <私>에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兩親と私」는 유서가 <私>에 의해 읽혀지면서 공개되기까지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兩親と私」가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등장인물들의 죽음과 관련지어 논해져 온 것에 반하여, 선생이 <私>에게 자신의 과거 고백을 유서의 형태로 남기기까지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私>와 선생의 관계

본 절에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단순한 語り手の 역할이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私>의 역할과, <私>와 선생이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생이 타인인 <私>에게 유서를 쓰게 된 이유를 <私>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1. 동등한 관계로의 발전

「先生と私」는 <私>가 선생과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시작하여 <私>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짐에 따라 고향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선생은 <私>에 비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고, <私>는 호기심 많고 순수하며 진지한 청년이다. <私>는 이유 없이 선생에게 끌리게 되고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선생의 사상을 접하자 선생의 과거에 대해 궁금함을 느끼게 된다.

「先生と私」에서 <私>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語り手の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선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語り手の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속에 참여하는 주체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과 처음 만났을 당시의 <私>는 선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었다.

<私>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여름 방학 鎌倉에서였다. 당시 외국인과 동행했던 선생을 본 <私>는 이유도 없이 그에게 끌리게 되고 앞으로 자주 찾아가도 되겠냐는 물음에 선생도 간단한 말로 허락한다. <私>는 東京으로 돌아와서 선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가가고, 두 번째로 선생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부재중인 선생을 쫓아 근처 묘지까지 가게 된다. 그곳에서 선생은 갑작스러운 <私>의 출현에 당황스러워하고, 곧 <私>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겉으로 드러낸다.

私が丸い墓石だの細長い御影の碑だのを指して、しきりに彼は云ひたがるのを、始めのうちは黙つて聞いてゐたが、仕舞に「貴方は死といふ事實をまだ眞面目に考へた事ありませんね」と云つた。私は黙つた。先生もそれぎり何とも云はなくなつた。

(『全集 第六卷』上 五 p.16)¹³⁾

선생은 묘지까지 따라온 <私>에게 자신의 경험에 의한 사상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말을 던진다.

아직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私>가 묘지에서 하는 언행들에 대해 선생은「貴方は死といふ事實をまだ眞面目に考へた事ありませんね」라는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낸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뒤이어 바로 숙부에게 배신당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친구 K의 자살 또한 직접 목격한 선생은, 죽음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선생의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생이 부모님의 죽음과 K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죽음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私>의 태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13) 夏目漱石『漱石全集』第六卷, 岩波書店, 1966년, p.16 (본고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함.)

그리고 선생의 태도에는 한 달에 한번씩 K의 묘지를 참배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私>에 의해 방해받았다는 불만의 표현이 숨어있기도 하다. 부인조차 함께하지 않았던 墓參りの 장소에 불쑥 나타난 <私>에 대한 불유쾌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타인을 향한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松本寛는 K의 묘지까지 찾아온 <私>로 인해 선생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或る日、「先生」の贖罪の場所であるKの墓地まで「先生」を追って来た時に、「先生」の「幸福」を支えていた、内面における罪の意識と外面における<他人の世界>の斷念との微妙なバランスは、一舉に崩壊に瀕することになる。¹⁴⁾

<私>가 선생의 속죄인 장소인 K의 묘지까지 선생을 찾아갔을 때, 선생이 외부를 향해 쌓고 있던 벽이 <私>로 인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私>는 선생을 방문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빈번하게 드나들게 된다. 선생은 여전히 <私>를 처음 만났을 때와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이 묘지에 가는 날을 알아챈 <私>는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今度御墓參りに入らつしゃる時に御伴をしても宜ござんすか。私は先生と一所に彼所いらが散歩して見たい」

「私は墓參りに行くんで、散歩に行くんぢやないですよ」(中略)

「ぢや御墓參りでも好いから一所に伴れて行つて下さい。私も御墓參りをしますから」

14) 松本寛『夏目漱石—現代人の原像』「第五章『こゝろ』—<自分の世界>と<他人の世界>のはざままで—」, 新地書房, 1986년, p.174

實際私には墓参と散歩との區別が殆んど無意味のやうに思はれたのである。すると先生の眉がちよつと曇つた。眼のうちにも異様の光が出た。それは迷惑とも嫌惡とも畏怖とも片付けられない微かな不安らしいものであつた。(中略)

「私は」と先生が云つた。「私はあなたに話す事の出来ないある理由があつて、他と一所にあすこへ墓参りには行きたくないのです。自分の妻さへまだ伴れて行つた事がないのです」

(『全集 第六卷』上 六 pp.19-20)

<私>는 거듭 선생에게 동행해도 괜찮을지 의향을 묻지만 선생의 태도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단호하고 어둡다. 선생의 태도는 <私>에게 어렴풋한 불안마저 느끼게 한다. 선생은 지금껏 부인과도 같이 묘지에 간 적이 없다고 하며 <私>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남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선생은 <私>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妻さへまだ伴れて行つた事がないのです」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선생은 K의 죽음 후 분명 부인과 함께 묘지에 간 적이 있다. 선생은 후에 유서에 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結婚した時妻が、何を思ひ出したのか、二人でKの墓参をしようと云ひ出しました。(中略)

私は妻の望通り二人連れ立つて雑司ヶ谷へ行きました。(中略)

私はそれ以後決して妻と一所にKの墓参りをしない事にしました。

(『全集 第六卷』下 五十一 pp.275-276)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선생은 결혼 후 부인과 함께 K의 묘지에 찾아갔던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私>에게는 부인조차 데리고 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의 「妻さへまだ伴れて行つた事がないのです」라는 말은 거짓 발언이 되어 버린다. 선생이 K의 묘지에 <私>를 데려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작가의 실수에 의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다시 <私>의 출현의 부분으로 돌아와서, 松本寛는 「この場合の『私』の出現が『先生』にとってどれほどの重たい衝撃であったかをはっきりと示していると言ってよい」¹⁵⁾라고 하면서 <私>라고 하는 타인의 출현이 선생에게 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분명, K의 죽음 이후 외부와 벽을 쌓고 살아오던 선생에게 다가온 새로운 타인의 출현은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은 점차 <私>와의 대화를 허용하는 선생의 모습에서 완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은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타인인 <私>에 대해 점점 경계를 늦추고 서서히 대화를 시도한다.

「私は淋しい人間です」と先生が云つた。「だから貴方の來て下さる事を喜んでゐます。だから何故さう度々來るのかと云つて聞いたのです」

「そりや又何故です」

私が斯う聞き返した時、先生は何とも答へなかった。たゞ私の顔を見て「あなたは幾歳ですか」と云つた。

此問答は私に取つて頗る不得要領のものであつたが、私は其時底迄押さずに歸へつて仕舞つた。 (『全集 第六卷』上 七 pp21-22)

선생은 스스로 고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私>가 자신을 찾아오는

15) 前掲注 14, p.176

이유를 묻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외로움을 느껴본 적 없는 당시의 <私>는 스스로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선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私>는 그 이유에 대해 반문하지만 선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나이를 묻는데, 여기서 선생은 자신의 청년시절을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私>의 모습을 학생 시절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파악하고 있는 선생은 <私> 또한 그러한 고독함 탓에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다시 방문한 <私>에게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私は淋しい人間ですが、ことによると貴方も淋しい人間ぢやないですか。私は淋しくつても年を取っているから、動かずにゐられるが、若いあなたは左右は行かないのでせう。動ける丈動きたいのでせう。動いて何かに打つかりたいのでせう…」

「私はちつとも淋しくはありません」

「若いうち程淋しいものはありません。そんなら何故貴方はさう度々私の宅へ來るのですか」(中略)

「あなたは私に會つても恐らくまだ淋しい氣が何處かでしてゐるでせう。私にはあなたの爲に其淋しさを根元から引き抜いて上げる丈の力がないんだから。貴方は外の方を向いて今に手を廣げ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す。今に私の宅の方へは足が向かなくなります」

(『全集 第六卷』上 七 pp22-23)

선생은 빈번히 자신을 찾아오는 <私>에 대해 젊을수록 고독한 법이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도 고독한 기분이 들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선생 또한 <私>와 같은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험으로부터 <私>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松本寛 또한 「つまり『先生』には、自分を慕って近づいてくる『私』とい

う青年が、かつての、いつまでのそのままでいたかった自分自身であるかの
ように見えていたのであって」¹⁶⁾라고 하며 선생이 언제까지나 그대로이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을 <私>에게서 보고 있다 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점
차 <私>를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고 번번이 찾아오는 <私>를 기
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

しかも夫から四日と経たないうちに又先生を訪問した。先生は座敷へ
出るや否や笑ひ出した。

「又來ましたね」と云つた。

「えゝ來ました」と云つて自分も笑つた。

私は外の人から斯う云はれたら屹度癪に触つたらうと思ふ。然し先
生に斯う云はれた時は、丸で反對であつた。癪に触らない許でなく却
つて愉快だつた。(『全集 第六卷』上 七 p.22)

외로움에 대한 대화를 시도했던 선생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던 <私>는
나홀도 되지 않아 다시 선생의 집을 방문한다. 선생은 다시 찾아온 <私>
에게 「又來ましたね」라고 말하며 웃음으로 맞이하고, <私>는 「又來まし
たね」라는 말을 매우 유쾌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私>와의 만남을
점차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선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私>라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에서, 잊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생은 점점 자신의 생각
을 <私>에게 던지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
제나 결론만을 이야기할 뿐으로 속사정을 알 수 없는 <私>는 거듭 궁금함
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증으로 끝날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私>는 선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생의 말에도 반박하게

16) 前掲注 14, p.186

된다.

先生は又「私のやうなものが世の中へ出て、口を利いては濟まない」
と答へるぎりで、取り合はなかつた。私には其答えが謙遜過ぎて却つて世間を冷評する様にも聞こえた。實際先生は時々昔しの同級生で今著名になつてゐる誰彼を捉へて、ひどく無遠慮な批評を加へる事があつた。それで私は露骨に其矛盾を擧げて云々して見た。私の精神は反抗の意味といふよりも、世間が先生を知らないで平氣であるのが残念だつたからである。 (『全集 第六卷』上 十一 pp.31-32)

<私>는,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친 겸손으로 일관하면서도 사회 정계에 나가있는 동급생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혹평하는 선생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느끼지만 또한 선생을 몰라주는 세상이 안타깝기만 하다. <私>는 선생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속셈을 계산하거나 눈치 보는 일 없이 궁금한 것은 거리낌 없이 묻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이다. 선생의 사상과 지식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세상 안에서만 안주하려는 선생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선생의 모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인물로서 사건의 서술하면서도 단지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생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여과 없이 내던진다. 이것은 독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선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선생의 사상에 대한 <私>의 질문은 언제나 일방적인 질문으로만 끝날 뿐이다. 선생은 자신이 던진 말에 대한 해설을 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들의 대화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선생의 사상이 태어난 배경은 그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상사에 대한 일들을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과 같은 경험을 한적 없는 <私>는 당연히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선생의 일방적

인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생은 <私>와 함께 산책하던 중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私>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성립된 연애 사상을 꺼낸다.

「聞こえました。戀の満足を味はつてゐる人はもつと暖かい聲を出す
ものです。然し……然し君、戀は罪惡ですよ。解つてゐますか」
私は急に驚ろかされた。何とも返事をしなかつた。

(『全集 第六卷』上 十二 p.36)

과거 선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애와 결혼을 위해, 친구 K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청혼을 해버렸다. 그리고 자신은 바람대로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K는 자살을 택한다. 선생은 신앙에 가까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이기심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함께 작용하여 K를 고독감에 빠뜨리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랑은 얻었지만 K는 자살을 하고, 예전 숙부에게 당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도 숙부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라고 여기게 된다. 사랑의 감정과 자신의 이기적인 면모를 함께 경험한 선생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에 의하면 연애는 최악이면서 신성한 것이다. 선생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경험했던 기억과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기심을 알게 되었고 자기불신에 빠지게 되었다. 선생은 단지 연애에 관한 말이라고는 「然し……然し君、戀は罪惡ですよ」라는 말로 끝내버린다. 그 말을 들은 <私>는 선생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 선생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사상을 내뱉고도 그에 관한 부가 설명은 전혀 하지 않는다. 반문하는 <私>에게 선생은 진실을 말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의 설명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私>는 선생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선생은 언제나 핵심이나 결론만을 이야기할 뿐,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체 입에 담지 않는다. 선생은 거듭 설명할수록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私>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

「又悪い事を云つた。焦慮せるのが悪いと思つて、説明しやうとする
と、其説明が又あなたを焦慮せるやうな結果になる。何うも仕方がな
い。此問題はこれで止めませう。とにかく戀は罪惡ですよ、よござん
すか。さうして神聖なものですよ」
私には先生の話が益解らなくなった。

(『全集 第六卷』上 十三 p.39)

선생은 <私>를 초조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거듭 연애에 대한 사상을 단호하게 단정 짓고, <私>는 선생의 말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私>에게는 학교 강의보다 선생과의 담화가 훨씬 더 유익하게 느껴지고, 교수의 의견보다도 선생의 사상을 고맙게 생각한다. 교단에 서서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 선생 쪽이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장남호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私>에 대해 「지식인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대학교수를 경시하는 것은 기성의 권위에 대한 반항, 전형적인 인간에 대한 부정이라고 여겨지며, (中略)이는 경박한 지식계급 청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¹⁷⁾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私>의 태도에서 기성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나 전형적인 인간에 대한 부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私>는 선

17) 장남호 「『고코로(こころ)의 성격』 - 『私』를 중심으로-」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년, p.268

생과의 만남에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사상과 지식들을 접했기 때문에 선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私>가 아직은 확실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선생의 사상이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私>는 여전히 선생과의 만남을 거듭하고 있지만 선생의 눈에 보여지는 <私>는 아직 쉽게 흥분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청년일 뿐이다. 선생이 <私>에게 「あなたは熱に浮かされてゐるのです。熱がさめると厭になります。」라고 말하며 쉽게 흥분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私>는 자신이 그렇게 경박하고 신용할 수 없는 인간으로 생각되는지 되묻는다. 선생은 <私>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또한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 선생의 태도로부터 알 수 있듯이 <私>는 여전히 선생의 영역 바깥에 서 있는 타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私>에게 아직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선생은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다.

「兎に角あまり私を信用しては不可ませんよ。今に後悔するから。さうして自分が欺むかれた返報に、殘酷な復讐をするやうになるものだから」

「そりや何ういふ意味ですか」

「かつては其人の膝の前に跪づいたといふ記憶が、今度は其人の頭の上に足を載せさせやうとするのです。私は未來の侮辱を受けないために、今の尊敬を斥ぞけたいと思ふのです。私は今より一層淋しい未來の私を我慢する代りに、淋しい今の私を我慢したいのです。自由と獨立と己れとに充ちた現代に生れた我々は、其犠牲としてみんな此淋しみを味はわなくてはならないでせう」

(『全集 第六卷』上 十四 p.41)

선생은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미래의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물리치려 하는 각오를 <私>에게 내비친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보다 한층 외로울 미래의 자신을 참는 대신, 고독한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견디고 싶다는 말을 한다. 선생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현재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독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을 믿게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이「自由と獨立と己れとに充ちた」라고 표현한 것은 고독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구를 배신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其犠牲としてみんな此淋しみを味はわなくてはならないでせう」라고 하면서「現代」「我々」등의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 하고 있다. 선생의 말 속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깨우친 진리가 담겨 있지만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기 때문에 <私>에게는 단순히 일반화된 이야기로 들리게 되고, 경험 부족한 <私>가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인 것이다.

장남호는 선생이 인간에 대한 각오를 말하는 부분을「선생은 체험에 근거한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분히 경박한 정신적 방황을 하는 가운데 선생을 우상화 하고 있는『나』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¹⁸⁾라고 해석하여, 선생의 지식과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私>의 모습을「경박한 정신적 방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의 사상이 <私>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私>가 경박한 정신적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생과 <私>의 경험의 차이와 타인을 경계하는 선생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私>가 경박한 정신적 방황을 하는 가운데 선생을 우상화하고 있다면, <私>는 선생이 내뱉는 사상들에

18) 前掲注 17, p.268

대해 의문 따위는 전혀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선생의 사상과 지식 자체는 <私> 스스로의 해석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私>는 계속되는 선생과의 만남 속에서 서서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물론 <私>는 아직 선생의 사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있지만, 인간에 대한 선생의 각오를 듣고 난 뒤에는 어디로부터 그러한 각오가 생겨났는지 의혹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선생의 각오를 듣고 난 뒤 그의 사상이 산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기에 이른다.

先生の人間に對する此覺悟は何處から來るのだらうか。たゞ冷たい眼で自分を内省したり現代を觀察したりした結果なのだらうか。先生は坐つて考へる質の人であつた。先生の頭さへあれば、斯ういふ態度は坐つて世の中を考へてゐても自然と出て來るものだらうか。私には左右ばかりとは思へなかつた。先生の覺悟は生きた覺悟らしかつた。(中略)

自分と切り離された他人の事實でなくつて、自分自身が痛切に味はつた事實、血が熱くなつたり脈が止まつたりする程の事實が、疊み込まれてゐるらしかつた。 (『全集 第六卷』上 十五 p.42)

<私>는 차츰 선생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거듭되는 선생과의 만남 속에서 선생의 사상을 접할 때마다 커져가는 의문에 대해 <私>는 선생의 사상과 각오가 그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항상 정리된 언변으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선생의 모습에서 간접 경험에 의한 사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통절하게 맛본 사실, 피가 끓고 맥박이 끊어질 정도의 사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측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선생과의 교제로 인해 성장해 온 <私>임에 가능한 것이다. 선생이 뱉어내는 지식과 사상들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私>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거나 의문이 나도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대화 속에서 선생의 사상의 근본적인 뿌리에까지 의문이 생긴 것이다. <私>가 접한 선생의 지식과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선생의 과거 경험까지 결부시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상은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私>의 인식에 선생의 사상은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라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음의 예에서 <私>는 선생이 평소와 다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별다른 느낌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졸업 논문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私>는 자신의 논문 주제와 선생의 전공이 비슷했기 때문에 선생의 의견을 듣고자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선생은 예전만큼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며 학교의 교수에게 묻는 편이 나을 거라고 한다. 부인으로부터 선생이 예전과 같지 않게 책에 흥미를 잃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적이 있는 <私>는 선생에게 어떠한 연유로 책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되었는지 묻는다. <私>는 「近頃は知らないといふ事が、それ程の恥でないやうに見え出したものだから、(中略)まあ早く云えば老い込んだのです」라고 하는 선생의 평범한 대답에서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감흥을 받을 수 없다.

先生の言葉は寧ろ平靜であつた。世間に背中を向けた人の苦味を帶びてゐなかつた丈に、私にはそれ程の手應もなかつた。私は先生を老い込んだとも思はない代りに、偉いとも感心せずに歸つた。

(『全集 第六卷』上 二十五 p.70)

학교의 강의나 교수의 의견보다 선생의 사상과 지식을 훌륭하다고 생각하

는 <私>이지만 세상을 향해 등 돌린 사람과 같은 쓴맛을 띠고 있지 말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평범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을 듯한 말은 <私>에게 별 감흥이 없다. 항상 알 수 없는 사상이나 의심이 담긴 말을 내뱉던 것에 비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선생의 말은 선생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즉 <私>의 관념 속 선생은 어렵고 어두운 사상만을 지닌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보통 누구나 알고 있는 언행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私>는 지금껏 선생에게서 접해왔던 그의 각오와 사상들은「自分が痛切に味はつた事實、血が熱くなつたり脈が止まつたりする程の事實」에 근거한다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법칙이나 이론들을 단지 <私>가 존경하는 선생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훌륭하다고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私>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며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장남호의 주장과 달리, <私>는 선생을 이상화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가진 독립적 인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생과의 대화는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못하고 답습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졸업 논문을 마무리 지은 <私>는 선생과 함께 산보를 하던 중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선생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君のうちに財産があるなら、今のうちに能く始末をつけて貰つて置かないと不可いと思ふがね、餘計な御世話だけれども。君の御父さんが達者なうちに、貰うものはちゃんと貰つて置くやうにしたら何うですか。萬一の事があつたあとで、一番面倒の起るのは財産の問題だから」
「えゝ」

私は先生の言葉に大した注意を拂はなかつた。私の家庭でそんな心配をしてゐるものは、私に限らず、父にしる母にしる、一人もないと私は信じてゐた。其上先生のいふ事の、先生として、あまりに實際的なのに私は少し驚ろかされた。然し其所は年長者に對する平生の敬意が私を無口にした。

(『全集 第六卷』上 二十八 p.76)

위의 인용문에서 선생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금전상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게다가 <私>의 집 재산에 대해 미리 처리해 두라고까지 한다. 선생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私>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대상이 선생이자 연장자이기 때문에 불만을 억제하고 있다. <私>는 지금껏 이해하기 힘든 사상의 핵심만을 말하던 선생이 지극히 현실적인 금전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고, 약간의 거부감까지 가지게 된다. 게다가 평소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던 선생은 금전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私は先刻そんなに昂奮したやうに見えたんですか」

「そんなにと云ふ程でもありませんが、少し…」

「いや見えても構はない。實際昂奮するんだから」(中略)

「私は他に欺むかれたのです。しかも血のつゝいた親戚のものから欺むかれたのです。私は決してそれを忘れないのです。私の父の前には善人であつたらしい彼等は、父の死ぬや否や許しがたい不徳義漢に變つたのです。私は彼等から受けた屈辱と損害を小供の時から今日迄背負はされてゐる。恐らく死ぬ迄背負はされ通しでせう。私は死ぬ迄それを忘れる事が出来ないんだから。然し私はまだ復讐をしずにゐる。考へると私は個人に對する復讐以上の事を現に遣つてゐるんだ。私は彼等を憎む許ぢやない、彼等が代表してゐる人間といふものを、一般に憎む事を覺えたのだ。私はそれで澤山だと思ふ」

선생은 금전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흥분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숙부에게 배신당했던 과거의 경험을 <私>에게 고백한다. 선생은 금전 문제에 이르러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백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 자체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 사실 또한 고백한다.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선생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금 눈앞에 있는 <私>가 당시의 선생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私>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私>는 선생의 이야기에 놀라게 된다.

然し私の驚ろいたのは、決して其調子ではなかつた。寧ろ先生の言葉が私の耳に訴へる意味そのものであつた。先生の口から斯んな自白を聞くのは、いかな私にも全くの意外に相違なかつた。私は先生の性質の特色として、斯んな執着力を未だ嘗て想像した事さへなかつた。私は先生をもつと弱い人と信じてゐた。さうして其弱くて高い處に、私の懐かしみの根を置いてゐた。(『全集 第六卷』上 三十 p.83)

선생이라는 사람은 금전적인 현실 문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지만 고결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인간을 미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私>는 선생의 말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선생의 금전상의 충고는 <私>와 더욱 가까워진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들어 자신의 충고를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로 인해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알고 난 뒤 순수했던 자

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신만을 가지게 되었다. 선생은 그 당시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私>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똑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으로 충고하고 있다. 후에 유서에서 선생은 금전상의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전한다. 이것은 선생이 <私>와의 교제 중에 <私>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유이자 변명이다.

私の答へは、思想界の奥へ突き進んで行かうとするあなたに取つて物足りなかつたかも知れませんが、陳腐だつたかも知れません。けれども私にはあれが生きた答でした。現に私は昂奮してゐたではありませんか。私は冷かな頭で新らしい事を口にするよりも、熱した舌で平凡な説を述べる方が生きてゐると信じてゐます。血の力で體が動くからです。言葉が空氣に波動を傳へる許でなく、もつと強い物にもつと強く働き掛ける事が出来るからです。 (『全集 第六卷』下 八 p.169)

선생은 금전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을 당시 불만스러웠던 <私>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사상이 <私>에게 부족하고 진부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평소와 같은 심오한 사상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私>가 당황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의 진짜 사상이었다. 그토록 <私>가 알고 싶어 했던 선생의 경험으로부터 피어난 사상이었던 것이다. 선생의 사상은 얼핏 들으면 차가운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로 선생은 뜨거운 혀로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강한 것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私>가 선생에게 실망감을 느낄 정도로 지극히 현실적인 언행이 실제로 선생이 해 주고 싶었던 살아있는 대답이었다. 그 당시 <私>는

선생의 의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선생의 태도는 <私>에 대한 선생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雜司ヶ谷 묘지까지 선생을 찾아온 <私>에게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던 선생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까지 들어가며 금전문제에 대해 충고하는 모습에서 선생과 <私> 사이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선생이 고백하고 있듯이 선생은 차가운 머리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뜨거운 혀로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살아있는 것이라 믿고 있다. 즉, <私>에 대한 선생의 태도는 차가운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피로부터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는 선생이 인간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뒤 중단되었고 <私>와 선생은 시내로 돌아가는 전차에 오른다. 그러나 둘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전차에서 내릴 때 즈음 선생의 태도는 조금 전 흥분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선생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私>는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온 선생을 보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其日の談話も遂にこれぎりで發展せずにはまつた。私は寧ろ先生の態度に畏縮して、先へ進む氣が起らなかつたのである。

二人は市の外れから電車に乗つたが、車内では殆んど口を聞かなかつた。電車を降りると間もなく別れ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別れる時の先生は、又變つてゐた。常よりは晴やかな調子で、「是から六月迄は一番氣樂な時ですね。ことによると生涯で一番氣樂かも知れない。精出して遊び玉へ」と云つた。私は笑つて帽子を脱つた。其時私は先生の顔を見て、先生は果たして心の何處で、一般の人間を憎んでゐるのだろうかと疑つた。その眼、その口、何處にも厭世的の影は射してゐなかつた。

(『全集 第六卷』上 三十一 p.84)

선생의 얼굴에서 전혀 염세적인 느낌을 받을 수 없었던 <私>는 과연 선생의 마음 어디에서 인간을 증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당시 선생의 사상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혹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私は思想上の問題に就いて、大いなる利益を先生から受けた事を自白する。然し同じ問題に就いて、利益を受けやうとしても、受けられない事が間々あつたと云はなければならない。先生の談話は時として不得要領に終つた。(『全集 第六卷』上 三十一 pp.84-85)

지금까지 <私>는 선생이 거의 항상 이야기의 핵심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대화를 하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질문을 시작하거나 할 때, <私>의 물음에 대해 선생은 항상 100%의 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등의 이유를 대며 <私>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해왔다. 이러한 의문들은 선생과의 교제 중에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 100%의 답은 후에 선생의 유서로써 해소된다.

처음 선생을 만났을 당시의 <私>는 말문이 막히면 거듭 그것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사실로써의 과거가 아닌, 선생의 사상의 근본이 되는 직접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때때로 선생은 <私>가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었다. 모든 것은 선생의 유서로 인해 풀리지만 당시의 <私>는 모든 것이 의아하기만 하다. <私>가 때때로 선생의 사상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선생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의 사상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자가 아닌 타인이 100%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선생 또한 계속해서 무엇인가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私>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들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항상 핵심과 결론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한 선생에게 <私>는 무심코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頭が鈍くて要領を得ないのは構ひませんが、ちゃんと解つてる癖に、はつきり云つて呉れないのは困ります」
「私は何にも隠してやしません」
「隠してゐらつしやいます」
「あなたは私の思想とか意見とかいふものと、私の過去とを、ごちゃごちゃに考へてゐるんぢやありませんか。私は貧弱な思想家ですけども、自分の頭で纏め上げた考を無暗に人に隠しやしません。隠す必要がないんだから。けれども私の過去を悉くあなたの前に物語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なると、それは又別問題になります」

(『全集 第六卷』上 三十一 p.85)

<私>는 그동안 자신이 느껴왔던 선생의 사상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私>는 선생이 의도적으로 사상과 관련된 사실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선생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무조건 숨기지도 않고 숨길 필요도 없지만 자신의 사상과 과거는 별문제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私>는 선생의 사상과 과거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며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別問題とは思はれません。先生の過去が生み出した思想だから、私は重きを置くのです。二つのものを切り離したら、私には殆んど価値のないものになります。」(中略)

「あなたは大胆だ」

「たゞ眞面目なんです。眞面目に人生から教訓を受けたいのです」

(『全集 第六卷』上 三十一 pp.85-86)

<私>는 선생의 말을 다시 반박하며 선생의 과거가 낳은 사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생의 과거의 경험과 사상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선생은 <私>의 대담한 태도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私>는 자신은 단지 진지할 뿐이며, 진지하게 인생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싶다고 한다. 요구하는 <私>와 요구받는 선생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고 두 사람은 이전의 선생과 <私>의 사이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 서 있게 되었다. 스스로 진지하다고 대답하는 <私>는 이미 선생을 처음 만났을 당시의 <私>가 아니다.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여 후에 유서에서 선생이 존경심을 느꼈다고 고백할 정도의 위치에 선 것이다. 비로소 <私>는 진지함에 있어서 선생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변화한 <私>의 태도에서 진지함을 발견한 선생은 언젠가 자신의 과거를 남김없이 이야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私は過去の因果で、人を疑りつけてゐる。だから實はあなたも疑つてゐる。然し何うもあなた丈は疑りたくない。あなたは疑るには餘りに單純すぎる様だ。私は死ぬ前にたつた一人で好いから、他を信用して死にたいと思つてゐる。あなたは其たつた一人になれますか。なつて呉れますか。あなたは腹の底から眞面目ですか」

「もし私の命が眞面目なものなら、私の今いつた事も眞面目です」

선생은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 타인을 불신하게 되었고 사실은 <私> 또한 의심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私>만은 의심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며 비로소 선생은 죽기 전 단 한 사람이라도 믿고 싶었던 타인으로 <私>를 택한다. K의 죽음 이후 줄곧 타인은 물론 자신마저 불신해왔던 선생이 마지막으로 <私>라는 단 한사람의 타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리고 <私> 또한 망설임 없이 선생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지한 인간이라고 답한다.

K가 자살하기 전까지 자신만은 타인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선생은 자기도 숙부와 다름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자기불신에 빠지게 되었다. 이기심으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끝없는 내면 갈등을 겪어 오던 선생은 K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私>라는 청년에 의해 인간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타인에 의해 타인과 세상 불신에 빠졌고 이기심으로 인해 자기 불신에 빠졌던 선생은 <私>에 의해 죽기 전 단 한사람이라도 믿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私>는 순수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지하고 경험 부족했던 청년의 모습에서 벗어나 선생과 같은 위치에 선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江藤淳은 『ころ』를 후기 3부작 중에서 구성상 가장 성공한 부류로 파악하면서 「作品の統一は、『私』を『先生』の運命を予見するものとし、『先生』を『私』の精神的親族とするによって見事に達成されている」¹⁹⁾라고 하여, 선생과 <私>의 관계를 정신적 친족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처음에는 선생을 이유 없이 추종하고 선생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던 <私>는 점

19) 江藤淳 「第六章『心』—所謂『漱石の微笑』」 『夏目漱石』(近代作家研究叢書128), 日本図書センター, 1993년, p.141

차 변화되어 선생에게 과거의 경험을 고백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私>가 선생과의 좀 더 깊은 정신적 교류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 또한 <私>에게서 진실함을 발견하고, 죽기 전 단 한사람이라도 믿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며 <私>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정신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私>의 존재는 후에 선생이 유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선생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과거를 <私>라는 타인에게 처음으로 고백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유서로 남기게 된다. 선생이 <私>에게 유서를 남긴 이유와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리라 결심하기까지 <私>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다음 절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1.2. 선생의 유서와 <私>

선생은 <私>와의 교제를 통해 K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私>라는 타인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私> 또한 선생과의 교제를 통해 자아의 성숙을 하게 되었다.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私>의 진솔한 태도를 접한 선생은 처음으로 <私>를 존경하게 되고 마침내 그의 과거를 <私>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선생에게는 자신의 과거 고백은 물론, 그것을 유서의 형태로 남길 이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²⁰⁾ 그러나 그것은 <私>라는 타인을 만난 이후 변화하였다.²¹⁾ 두 선행연구 모두 선생이 <私>에 의해 변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유서 또한 남기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長谷川和子は「その事實だけを、一人あなたに物語りたい。そして、

20) 長谷川和子「『こゝろ』論」『日本文芸研究』第三十三卷二号, 1981년 6월, p.51

21) 佐藤裕子「漱石『こゝろ』の主題と遺書の意識」『日本文芸研究』第三十八卷二号, 1986년 7월, p.35

まさにこのとき、作品『こゝろ』は、先生の『死』を約束するのである。」²²⁾라고 하며 역시 <私>라는 인물과 선생의 죽음을 연관 지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佐藤裕子 또한 선생과 <私>의 진정한 만남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先生の死とひきかえに『私』に浴びせかけられた血潮の中で、希望の輝きを放つようになるのである」²³⁾라며 선생의 죽음과 <私>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있어 타 논문과 대동소이하다. 두 논문 모두 선생이 유서를 쓰게 되기까지의 <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생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과거를 <私>에게 유서로 쓰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와 거기에 영향을 미친 <私>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1.1 동등한 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절에서 언급했듯이 선생은 타의에 의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私>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私>의 진지함에 감동하여 자기 고백을 결심하게 되었다. <私> 또한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꾸밈없고 진지한 태도 덕분에 인간다운 교제가 가능했다고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然し私は先生を研究する氣で其宅へ出入りをするのではなかつた。私はたゞ其儘にして打過ぎた。今考へると其時の私の態度は、私の生活のうちで寧ろ尊むべきものゝ一つであつた。私は全くそのために先生と人間らしい溫かい交際が出来たのだと思ふ。もし私の好奇心が幾分でも先生の心に向かつて、研究的に働らき掛けたなら、二人の間を繋ぐ同情の糸は、何の容赦もなく其時ふつりと切れて仕舞つたらう。(中略)

先生はそれでなくても、冷たい眼で研究されるのを絶えず恐れてゐた

22) 前掲注 20, p.51

23) 前掲注 21, p.44

のである。

(『全集 第六卷』上 七 pp.20-21)

<私>는 선생과의 교제를 시작했던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선생의 죽음 이후 알게 되었다. 당시의 <私>는 경험 없는 학생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그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태도가 자신과 선생을 이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한다. 그것은 <私>가 머리가 아닌 진솔한 마음으로 선생에게 다가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품의 제목에서도 드러날 정도로 작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으며, 선생이 <私>에게 유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선생은 <私>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과거를 안고 평생 괴로워하며 살다 과거를 끌어안은 채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たゞし受け入れる事の出来ない人に與へる位なら、私はむしろ私の経験を私の生命と共に葬つた方が好いと思ひます。實際こゝに貴方といふ一人の男が存在してゐないならば、私の過去はついに私の過去で、間接にも他人の知識にはならないで済んだでせう。私は何千萬とゐる日本人のうちで、たゞ貴方丈に、私の過去を物語りたいのです。あなたは眞面目だから。 (『全集 第六卷』下 二 p.153)

선생은 유서의 앞부분에서 오로지 <私>에게만 유서를 남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私>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과거는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의 지식이 되지 않고 끝났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私>를 자신의 과거 고백 대상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선생은 K에의 죄책감과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 괴로워하며 죽기 전 단 한사람이라도 신용할 수 있는 진지한 인간을 기다려 왔다. 앞서 <私> 또한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의 계산 없는 태도가 선생과의 인간다

운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결과 선생은 자신을 괴롭혀 왔던 과거를 타인인 <私>에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私>가 자신에게 보여준 대답하지만 진솔하고 순수한 마음과 태도에 처음으로 <私>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다.

其極あなたは私の過去を繪卷物のやうに、あなたの前に展開して呉れ
と逼つた。私は其時心のうちで、始めて貴方を尊敬した。あなたが無
遠慮に私の腹の中から、或生きたものを捕まへやうといふ決心を見せ
たからです。私の心臓を立ち割つて、濫かく流れる血潮を啜らうとし
たからです。(『全集 第六卷』下 二 p.154)

선생이 <私>라는 타인을 존경하게 된 것은 <私>는 죽어있는 진리가 아닌 살아서 숨 쉬는 사상을 자신 앞에 펼쳐놓으라고 선생에게 요구하며, 전혀 거리낌 없이 선생이 몸소 체험한 진리를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인생 자체에서 얻은 산 교훈을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私>이기 때문에 선생은 자신이 경험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私>에게 고백하리라 약속하는 것이다. <私>라는 청년은, 선생이 숙부에게 배신당하기 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여기고 있는 태어난 그대로의 순수하고 진지한 인간으로, 선생은 그런 그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선생은 숙부에게 속았던 당시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다시 한 번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凡てを叔父任せにして平氣でゐた私は、世間的に云へば本當の

馬鹿でした。世間的以上の見地から評すれば、或は純なる尊い男
とでも云へませうか。私は其時の己れを顧みて、何故もつと人が悪
く生れて來なかつたかと思ふと、正直過ぎた自分が口惜しくつて堪り
ません。然しまた何うかして、もう一度あゝいふ生れたままの姿に立
ち歸つて生きて見たいといふ心持も起るのです。

(『全集 第六卷』下 九 p.169)

고백하고 있듯이 선생은 처음부터 염세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순수하고
고귀한 성품 탓에 숙부에게 속고만 있었던 당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미움을 품기 이전의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
가고 싶은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선생은 <私>의 모습에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의 이기심에 휘둘렸던 일을 후회하면서 <私>가 자신
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인생의 경험담을 고백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私>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거침없는 성품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또한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다음 인용문에서 선생은 금전
적으로는 세상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간직하고 있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私は金に對して人類を疑ぐつたけれども、愛に對しては、まだ人類を
疑はなかつたのです。だから他から見ると變なものでも、また自分で
考へて見て、矛盾したものでも、私の胸のなかでは平氣で兩立してゐ
たのです。

(『全集 第六卷』下 十二 p.178)

숙부의 배신 이후 항상 의식적으로 타인을 의심해왔던 선생은 사랑에 대
해서만은 인간을 의심하지 않았고, 모순이긴 하지만 타인불신과 사랑이 마
음속에 양립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선생은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 작용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친구를 배신하게 되었고 사랑의 마음 또한 그 이후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K의 죽음 이후 선생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의 감정은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은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선생이 <私>에게 유서를 남기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私>였기 때문이다. 선생의 유서를 읽고 난 <私>는 선생에 대해 다음의 인용문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人間を愛し得る人、愛せずにはゐられない人、それでゐて自分の懷に入らうとするものを、手をひろげて抱き締める事の出来ない人、一是が先生であつた。(『全集 第六卷』上 六 p.19)

<私>는 선생에 대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끌어안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는 유서에서 선생이 고백한대로 자신의 마음속은 타인 불신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이 양립하고 있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숙부의 배신 이후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선생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또 다른 곳에 숨어있던 이기심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기불신에 빠지게 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선생 자신도 타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叔父に欺むかれた當時の私は、他の頼みにならない事をつくづくと感じたには相違ありませんが、他を悪く取る丈あつて、自分はまだ確な氣がしてゐました。(中略)
それがKのために美事に破壊されてしまつて、自分もあの叔父と同じ

人間だと意識した時、私は急にふらふらしました。他に愛想を盡かした私は、自分にも愛想を盡かして動けなくなつたのです。

(『全集 第六卷』下 五十二 p.278)

선생은 그토록 혐오하던 숙부와 자신이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절망한다. 믿었던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나미가 떨어진 것이다. 이후 선생의 마음에는 자기불신과 타인불신만이 양립하게 되었다. 타인 불신과 양립하던 사랑의 감정 때문에 이기심 앞에 흔들렸고, 이기심으로 인해 마음속에 양립하던 인간에 대한 사랑마저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이기심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 것이 되었다. 선생은 그런 자신의 모습조차 <私>에게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부인에게조차 벽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심정과 그로 인한 고독함에 대해 고백한다.

然し腹の底では、世の中で自分が最も信愛してゐるたつた一人の人間すら、自分を理解してゐないのかと思ふと、悲しかつたのです。理解させる手段があるのに、理解させる勇氣が出せないのだと思ふと益悲しかつたのです。私は寂寞でした。何處からも切り離されて世の中にたつた一人住んでゐるやうな氣のした事も能くありました。

(『全集 第六卷』下 五十三 p.280)

선생은 부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보다 스스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더욱 괴롭기만 하다. 선생을 이기심에 눈멀게 할 정도로 사랑했던 부인은 이제 서로의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동거인일 뿐이다. 선생은 K와 얽힌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부인이 이해해 주리라 믿고 있지만 부인의 기억에 어두운 한 점을 남기고 싶지 않

왔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지키려고 한다. 선생이 부인에게 K와 관련된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 부분에서 장남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선생이 왜 아내에게 고백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생은 「어두운 한 점」 운운하고 있지만, K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때 선생은 이미 사람과 소통하는 좁은 길을 차단해 버렸던 것은 아닐까. 선생은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K가 자살한 뒤 아가씨와의 결혼을 수행한 시점에서 부부 「사이」의 비밀은 영원히 선생 혼자의 가슴속에 묻혀버린 것이 된다. 선생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 그 자체가 비밀 은폐의 기구 그 자체인 것이다.²⁴⁾

선생이 K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이미 타인과의 소통은 차단되었으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인과의 결혼을 통해 더욱 그 비밀은 은폐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불과하며 부부 「사이」의 비밀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K와 선생, 부인이 엮힌 비밀은 부부 관계가 성립되기 훨씬 전부터 선생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은 부부 관계가 성립된 후 부인에게 K의 죽음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려 했지만 순백의 상태인 부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운 심정이었다고 고백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생은 부인에게 K와 관련된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부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K의 생각에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 선생이 부인에게 비밀을 고백했다면 K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스스로

24) 장남호 「『고코로(こころ)』의 성격-『私』를 중심으로-」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년, p.278.

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비밀을 고백하고 부인이 이해해주었다 하더라도 K가 자살한 시점에서 선생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부인이 궁금해 하는 사실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고 부인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다 하더라도 선생의 죄의식은 K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은 유서에서 <私>에게 부인에게만은 자신의 과거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K의 죽음에 선생과 부인이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부인이 알게 되면 부인에게 어두운 점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생이 부인에게 과거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선생은 이기심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생은 유서에서, 스스로 과거를 부인에게 고백하지 않는 것에는 이해타산이 있을 리 없다고 하였지만, 부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끝까지 비밀로 지키고 싶은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부인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면서도 스스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밀어내어진 당사자가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에 관련된 사실 또한 감추려고 한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이기심과 죄책감이었다. 이기심과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숨기려는 모습까지 <私>에게 고백한다. 그로써 <私>는 고스란히 선생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고 추측에 지나지 않았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알게 된다. 이것은 <私>라는 청년의 「眞面目」와 가장 관계 깊다. 선생은 <私>가 순수하고 진지한 면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인생의 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상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유서의 형태로 남기게 된다.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통째로 타인인 <私>에게 떠넘김으로써 선생의 죽음 이후에도 <私>는 선생의 삶과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私>의 「眞面目」는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유서로 남기
고자 결심하게 한 요인이며 그로 인해 <私>는 선생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타인이 된다. 그리고 <私>의 「眞面目」는, 타인불신 뿐만 아니라
자기혐오에 빠져 있던 선생이 진심으로 단 한사람의 타인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이며, 고백할 이유가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유서로써 타인에게 남
기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私>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선생
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松本寛²⁵⁾나, 유서가 선생의 자살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私>를 통해 선생이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는 김정훈²⁶⁾의
주장은 선생의 죽음과 <私>라는 인물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때
문에 <私>의 「眞面目」가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리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논자의 주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선생의 죽음이 <私>로 인해 비롯된 것이
라고 하는 것에 공통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의 죽음에 대한 결심은 <私>
를 만나고 난 뒤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K의 죽음 이후 계속되어 온 것이
다. 다음 인용문은 선생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先生は迷惑さうに庭の方を向いた。其庭に、此間迄重さうな赤い強い色を
ぼたぼた點じてゐた椿の花はもう一つも見えなかつた。先生は座敷から此
椿の花をよく眺める癖があつた。 (『全集 第六卷』上 十四 p.40)

25) 松本寛 『夏目漱石—現代人の原像』 「第五章 『こゝろ』 -<自分の世界>と<他人の世界>
のはざままで-」, 新地書房, 1986년, pp.173-174

26) 김정훈 「『나』를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 - 『마음』 再讀-」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년, p.132

<私>는 선생이 정원에 핀 동백꽃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회상한다. 선생의 정원에 심어져 있는 동백나무의 꽃은, 꽃이 질 때에 꽃잎이 날장으로 떨어지지 않고 꽃받침 부분부터 통째로 떨어진다. 때문에 그것이 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병문안 시 가지고 가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으며, 특히 무사들은 목이 떨어지는 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로 동백꽃을 싫어했다고 한다.²⁷⁾ 선생이 동백나무를 바라보는 모습 또한, 자신의 죽음을 버릇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는 정원의 동백나무에 꽃이 다 떨어진 모습을 응시하고 있는 선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생의 죽음에 대한 암시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동백꽃이 지는 모습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こころ』 이외에도 夏目漱石의 『草枕』²⁸⁾에서도 볼 수 있다. 『こころ』에서는 동백꽃의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반면, 『草枕』에서는 동백꽃이 지는 모습을 더욱 직접적으로 죽음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幾千年の後には此古池が、人の知らぬ間に、落ちた椿のために、埋もれて、元の平地に戻るかも知れぬ。又一つの大きいのが血を塗つた、人魂の様に落ちる。又落ちる。ぼたりぼたりと落ちる。際限なく落ちる。²⁹⁾

화가인 주인공이 물가에 핀 동백꽃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묘사하는 부분에서 큰 동백꽃 한 송이가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血を塗つた、人魂の様に落ちる。」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동백꽃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동백꽃의 붉은 색을 피를 바른 것으로 표현하고,

27) <http://ja.wikipedia.org/wiki/%E3%83%84%E3%83%90%E3%82%AD> 참조.

28) 1906년 9월 『新小説』에 발표한 夏目漱石의 초기 작품. 한 청년 화가가 도시를 떠나 온천지를 여행하면서 그 곳에서 那美라는 여성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29) 夏目漱石 『漱石全集』第二卷, 岩波書店, 1966년, p.500

꽃잎이 흩어지듯이 날장으로 지지 않고 꽃송이 전체가 떨어지는 동백꽃의 모습을 사람의 혼과 같이 떨어진다고 표현함으로써 동백꽃이 지는 모습을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원의 동백꽃을 응시하는 선생의 버릇 또한 죽음의 암시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유서에서 <私>를 만나기 이전부터 죽음에 대한 결심을 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한다.

斯うした階段を段々経過して行くうちに、人に鞭たれるよりも、自分で自分を鞭つ可きだといふ氣になります。自分で自分を鞭つよりも、自分で自分を殺すべきだといふ考が起ります。私は仕方がないから、死んだ氣で生きて行かうと決心しました。(『全集 第六卷』下 五十四 pp.282-283)

私は今日に至る迄既に二三度運命の導いて行く最も樂な方向へ進もうとした事があります。(『全集 第六卷』下 五十四 p.284)

선생은 K의 죽음 이후 줄곧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시간이 경과해 가는 동안 그 죄책감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私>에게 유서를 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운명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혼자 남을 부인 때문에 죽은 듯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私>를 처음 만났던鎌倉에서도, 함께 산책을 했을 때도, 선생의 기분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私は斯んな風にして生きて來たのです。始めて貴方に鎌倉で會つた時も、貴方と一所に郊外を散歩した時も、私の氣分に大した變りはなかつたです。私の後には何時でも黒い影が括ツ付いてゐました。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선생의 고백은, 이미 <私>를 만나기 전부터 죽음을 생각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私>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는 선생이 죽음을 결심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앞서 보아왔듯이 <私>라는 인물의 가치는 선생의 죽음과 연관시킬 때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타인에게 고백하리라 결심하는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이 <私>에게 유서를 남긴 이유로써 김정훈은 「친밀감」과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선생이 <私>에게 유서를 남긴 것은, 단순히 친밀감과 별개의 존재라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선생의 과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眞面目」를 갖춘 인격체이자 정신적인 교류가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정리하자면, 선생의 죽음에 대한 결심은 <私>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선생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선생의 무의식중의 버릇으로부터도 암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私>에게 쓴 유서가 선생의 자살을 불러오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니라, 선생이 죽을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私>가 선생의 과거 고백의 편지를 유서의 형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私>는 선생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간접적인 유서를 통해 훗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단순한 語り手나 선생에게 영향을 받기만하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선생에게 가장 가깝고 동등한 타인으로서 존재하며, 상호 작용하는 사이에 선생이 자신의 삶을 유서로 남길 수 있도록 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본고에서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2절에서는 졸업 이후 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私>의 모습을 통해 선생과의 만남 이후 변화된 <私>의 모습과 「兩親と私」에 등장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兩親と私」에 흐르고 있는 시대상황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兩親と私」는 <私>가 선생의 유서를 받기 전 선생과의 교제의 공백 기간 동안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先生と私」에 이어 <私>가 語り手로 등장하면서 선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私>는 선생과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선생을 떠올리고 편지를 보내며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린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선생을 항상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와 선생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선생과의 교제 후 변화한 <私>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兩親と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私>에게 유서를 보내는 선생과, 위독한 아버지를 뒤로 하고 이미 죽은 선생에게 향하는 <私>를 통해 선생과 <私>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과 <私>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뛰어 넘어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타인이라는 대립 구도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兩親と私」에서의 <私>

「兩親と私」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 시대상황과 <私>의 가족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私>가 졸업 후 고향에 가서 점점 위독해지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과 <私>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있는 「先生と私」와, <私>가 선생의 유서를 읽어가

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先生と遺書」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분명치 않다는 인상을 받아 왔다. 앞서 서론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兩親と私」에는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先生と遺書」에 이어서 <私>가 語り手로 등장하여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한 선생과의 관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兩親と私」를 <私>와 가족, 선생과의 관계, 시대적 흐름을 상징하는 등장인물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兩親と私」에 등장하는 <私>의 가족과 그와 대비되는 타인인 선생이 <私>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파악함으로써 「先生と私」에 이어 계속되는 선생과 <私>의 관계와 또한 가족과 선생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私>의 모습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

2.1. 가족과 타인

「兩親と私」는 <私>가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私>의 가족이 등장하고 그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후 <私>는 여름을 고향에서 지낼 생각으로 졸업장과 선물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의식중에 선생의 행동과 비교되어 인식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촌스럽게 느껴져 실망감을 느낀다.

「卒業が出来てまあ結構だ」

父は此言葉を何遍も繰り返した。私は心のうちで此父の喜びと、卒業式のあつた晩先生の家の食卓で、「御目出たう」と云はれた時の先生

の顔付とを比較した。私には口で祝つてくれながら、腹の底でけなし
てゐる先生の方が、それ程にもないものを珍らしさうに嬉しがる父よ
りも、却つて高尚に見えた。私は仕舞に父の無知から出る田舎臭い所
に不快を感じ出した。(『全集 第六卷』中 一 pp.102-103)

<私>는 졸업을 축하한다고 거듭 말하는 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느낀다. 그
것은 반복되는 인사에 의한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졸업식 당일의 선생
의 태도와 비교되어 나타난 불쾌감이다. 그러나 졸업식 당일 저녁, 선생의
집에서 축하를 위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私>는 선생의 축하인사 태도
에서 걸치레 정도의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자연스레 아버지
를 떠올렸었다.

「御目出たう」と云つて、先生が私のために杯を上げて呉れた。私は
此盃に對して夫程嬉しい氣を起さなかつた。(中略)
先生は笑つて杯を上げた。私は其笑のうちに、些とも意地の悪いアイ
ロニーを認めなかつた。同時に目出たいといふ眞情も汲み取る事が出
來なかつた。先生の笑は、「世間はこんな場合によく御目出たうと云
ひたがるものですね」と私に物語つてゐた。
奥さんは私に「結構ね。嘸御父さんや御母さんは御喜びでせう」と云
つて呉れた。私は突然病氣の父の事を考へた。早くあの卒業証書を持
つて行つて見せて遣らうと思つた。

「先生の卒業証書は何うしました」と私が聞いた。

「何うしたかね。――まだ何處かに仕舞つてあつたかね」と先生が奥
さんに聞いた。

「えゝ、たしか仕舞つてある筈ですが」

卒業証書の在處は二人とも能く知らなかつた。

(『全集 第六卷』上 三十二 pp.88-89)

선생은 잔을 들어 축하의 인사를 건네었지만, <私>에게는 그 인사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축하가 아닌 겉치레 정도의 인사로 들릴 뿐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부인의 말에 자연스럽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빨리 졸업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비록 자신도 졸업에 대한 기쁨을 만끽할 만큼 신이 나 있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인사가 아닌 축하를 듣자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비꼬는듯하게 느껴진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할 부모님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私>는 선생과 부인 모두 선생의 졸업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대학 졸업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떠올리고 있는 <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私>는 선생이 대학 졸업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곧 부모님께 졸업증서를 보여주는 <私>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私>는 겉치레 인사 정도로만 축하를 해 주었던 선생의 태도에 대해 진심어린 인사가 아닌 비꼼 정도로 여겼으면서도 선생의 태도를 부모님의 태도보다 더 고상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태도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불쾌함 정도로 느낀다. 선생의 무성의한 행동이 아버지의 무지한 태도와 비교되자 당연한 듯이 선생 쪽이 고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서 선생과의 교체로부터 <私>가 받은 영향을 알 수 있다. <私>는 태어나서 줄곧 함께 생활해온 부모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의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심오한 사상과 지식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준 선생과는 전혀 다른 고향의 부모에게 자신도 모르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축하 인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게 되자, 아버지가 느낀 커다란 기쁨을 대

수롭지 않게 여긴 경솔한 행동에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후회하게 된다.

<私>의 행동은 선생과의 교제를 통해 이미 몸과 머릿속에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私>는 태어나서부터 상경하기 전까지 보아오던 부모님과와는 확연히 다른 선생을 만나 그의 사상에 감화되고, 대학의 교수보다도 선생 쪽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생과의 만남에서 점점 영향을 받아 변모한 <私>는 선생과 상이한 아버지의 행동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선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사람은 늘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는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私> 또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으로서 전혀 체험할 수 없었던 사상들을 속속 뱉어내는 선생을 아버지보다 고상하게 느끼는 것이다.

아버지의 축하 인사에는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졸업해 주어서 다행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私>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私>는 비로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부모님 앞에 졸업장을 꺼내 놓는다. 그러나 졸업장은 어딘가에 눌러 원래의 형태를 잃고 있었다.

証書は何かに壓し潰されて、元の形を失つてゐた。父はそれを鄭寧に伸した。(中略)

一旦癖のついた鳥の子紙の証書は、中々父の自由にならなかつた。適當な位置に置かれるや否や、すぐ己れに自然な勢を得て倒れやうとした。

(『全集 第六卷』中 一 p.104)

<私>는 졸업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가져와, 그것은 어딘가 눌러져서 본래의 형태를 잃고 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래 형태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적당한 위치에 올려두지만 이내

저절로 쓰러지고 만다. <私>가 부주의하게 가져 와 아버지의 의지로는 원래 형태로 돌릴 수 없는 졸업장은 <私>와 아버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私>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구겨진 졸업장과 같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까이서 보아 온 아버지에 대한 나의 잠재된 감정이 구겨진 졸업장에 투영되어 있다. 선생과의 교제에 의해 영향을 받은 <私>의 의식에 아버지의 행동들은 품위 없고 고루해 보이기만 하고, 뭔가에 눌려져 접힌 졸업장은 좀처럼 유대감을 느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私>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私>가 졸업증서를 다루는 태도는 무의식중에 선생에게 받은 영향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졸업 당일 밤 선생에게 들은 겉치레 정도의 축하인사와 졸업장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선생의 태도가 <私>에게 전해져, <私> 또한 선생과 비슷한 태도로 졸업장을 다루고 지나친 축하 인사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졸업식 직후 하숙으로 돌아온 <私>는 졸업증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下宿の二階の窓をあけて、遠眼鏡のやうにぐるぐる巻いた卒業証書の穴から、見える丈の世の中を見渡した。それから其卒業証書を机の上に放り出した。(中略)

すると其間に立つて一區切を付けてゐる此卒業証書なるものが、意味のあるやうな、又意味のないやうな變な紙に思はれた。

(『全集 第六卷』上 三十二 p.87)

졸업식에서 돌아온 <私>는 하숙집 2층 창문을 열어, 망원경처럼 돌돌 만 졸업증서의 구멍으로부터 보이는 만큼의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내 책상 위로 내던진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한 부분을 잇고 있는 졸업증서의 의미를 확신할 수 없었다. <私>는 돌돌 만 졸업증서의 구멍으로는 넓

은 세상을 볼 수 없었고, 곧 싫증을 느껴 졸업증서를 책상으로 내던진 것이다. 즉 졸업증서를 통해 보이는 좁은 세상은 아버지를 통해 보여지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졸업증서를 통해 확보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고자 책상위로 내던지지만, 곧 졸업증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던 졸업증서는 결국 구겨진 채 고향까지 가게 된다. <私>에게 아버지의 존재란 이렇듯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私>는 때때로 선생이 있는 東京을 떠올린다.

私は固より先生を忘れなかつた。原稿紙へ細字で三枚ばかり國へ歸つてから以後の自分といふやうなものを題目にして書き綴つたのを送る事にした。私はそれを封じる時、先生は果たしてまだ東京にゐるだらうかと疑つた。(中略)

其癖その手紙のうちには是といふ程の必要の事も書いてないのを、私は能く承知してゐた。たゞ私は淋しかつた。さうして先生から返事の來るのを豫期してかゝつた。然し其返事は遂に來なかつた。

(『全集 第六卷』中 四 pp.110-111)

<私>는 東京을 떠나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선생의 모습을 종종 떠올린다. 사색에 빠져있을 때나, 어떤 한 요인에 의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다가 선생에 대한 생각으로 치닫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다. 선생을 떠올리게 되는 과정에서 <私>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私>가 선생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선생은 <私>에게 자신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거듭 되풀이 했었다. 그 당시 당신도 외롭지 않느냐는 선생의 물음에 <私>는 조금도 외롭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선생과의 교제 후 고향으로 돌아간 <私>

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고향으로 오기 전에는 빈번했던 선생과의 만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과의 대화로는 선생의 부재로 인한 <私>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할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는 선생의 답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는다. <私>는 답장을 보내지 않는 선생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선생과 아버지를 항상 함께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私は淋しさうな父の態度と言葉を繰り返しながら、手紙を出しても返事を寄こさない先生の事をまた憶ひ浮べた。先生と父とは、丸で反對の印象を私に與へる點に於て、比較の上にも、連想の上にも、一所に私の頭に上り易かつた。(『全集 第六卷』中 八 p.122)

<私>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선생을 떠올리게 되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사람은 <私>에게 정반대의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비교와 연상에서 떠올리기 쉬웠다. 앞서 보았듯이 <私>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존재이지만, 선생의 존재는 잠시 떨어져 있어도 허전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존재이다. 게다가 「兩親と私」의 마지막 부분에서 <私>는 선생에게 받은 편지를 읽다가 그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독한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東京으로 가버린다. 피로 이어진 관계인 아버지를 뒤로하고 타인인 선생을 택한 <私>의 행동을 통해, 가족과 대비되는 타인인 선생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다시 한 번 <私>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私>와 선생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私は殆んど父の凡ても知り盡してゐた。もし父を離れるとすれば、情合の上に親子の心残りがある丈であつた。先生の多くはまだ私に解つてゐなかつた。(中略)

要するに先生は私にとって薄暗かつた。私は是非とも其所を通り越して、明るい所迄行かなければ氣が濟まなかつた。先生と關係の絶えるのは私にとって大いなる苦痛であつた。(『全集 第六卷』中 八 pp.122-123)

<私>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선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고 하며, 아버지가 위독한 중에도 일 자리를 핑계로 선생이 있는 東京으로 갈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私>의 마음이 선생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私>와 아버지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 즉 생득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물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私>에게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私>와 가족은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항상 머리와 마음속에 서로의 존재가 각인되어 있는 관계이다. 그 자신의 의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인 것이다. 그에 비해 <私>와 선생의 관계는 선생이 서서히 <私>에게 마음을 열어 특별한 관계가 되었지만 타인에 타인의 관계이며, <私>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 맺게 된 관계이다. 즉 자신의 의지로 인해 이루어진 정신적인 관계이다. <私>는 무의식중에 아버지와 선생을 비교하면서도 가족과 타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私は此不快の裏に坐りながら、一方に父の病氣を考へた。父の死んだ後の想像した。さうして夫と同時に、先生の事を一方に思ひ浮かべた。私は此

不快な心持の兩端に地位、教育、性格の全然異なつた二人の面影を眺めた。
(『全集 第六卷』中 十一 p.129)

<私>는 아버지가 점점 위독해져감에 따라 어느새 아버지의 죽음을 각오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를 걱정하고 있다.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 염려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을 떠올린다. 역시 <私>에게 아버지와 선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응시한다. <私>는 선생과 아버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아버지는 더욱 위독해져 <私>는 아버지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옴을 감지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때 선생이 보낸 우편물이 도착하고 <私>는 그것이 선생의 유서임을 알게 된다. <私>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잠시 동요하지만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곧 東京으로 떠난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인 아버지와 가족을 내버려두고, 자신의 의지로 맺어진 정신적 관계인 선생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향하는 것이다.

이처럼 「兩親と私」에서는 「先生と私」에 이어 계속되는 선생과 <私>의 관계와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한 <私>의 모습, 그리고 <私>가 인식하는 선생이라는 타인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존재는 <私>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고 선생과의 교제 속에서도 가끔 생각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선생과의 교제 후 고향으로 돌아온 뒤 무의식중에 선생과 아버지를 비교하게 되고, 아버지가 위독한 중에도 선생을 떠올리며 선생이 있는 東京으로 가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의 유서를 받고 나서 위독한 아버지를 뒤로하고 상경함으로써, 선생과 <私>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兩親と私」에 드러나 있는 시대상황과 그와 관련

된 등장인물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2.2. 시대상황과 죽음의 의미

앞 절에서는 「先生と私」에 이어 「兩親と私」에서 드러나는 선생과 <私>의 관계를 <私>의 가족관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선생과의 만남 이후 변화된 <私>의 모습 또한 발견하였다. 그러나 「兩親と私」에서 선생과 <私>의 관계 이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시대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兩親と私」에서는 시대를 상징하는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과 함께 갑작스러운 선생의 죽음이 알려지고 <私>의 아버지 또한 죽음의 고비에 다다른다. 선행 연구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과, 선생과 아버지의 죽음을 주로 시대상황을 나타내는 장치로써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私>의 아버지는 <私>가 졸업하여 고향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버지는 <私>의 학기 중에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지만 이후 별다른 증상 없이 정원의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왔다. 아버지는 <私>가 졸업 후 고향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明治天皇의 병환 소식을 접하고는 취소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私>의 아버지의 경과는 天皇의 병세와 함께 진행된다. 아버지는 위독해지기 전부터 天皇의 병을 자신의 병과 동일시하고 있다.

其日取りのまだ來ないうちに、ある大きな事が起つた。それは明治天皇

の御病氣の報知であつた。(中略)

「まあ、御遠慮申した方が可からう」

眼鏡を掛けて新聞を見てゐた父は斯う云つた。父は黙つて自分の病氣の事も考えてゐるらしかった。(『全集 第六卷』中 三 p.109)

天皇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私>의 축하연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며, 또한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골몰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私>의 눈을 통해 짐작한 것이었지만, 곧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의 병과 天皇의 병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다.

ことに陛下の御病氣以後父は凝と考へ込んでゐるやうに見えた。毎日新聞の來るのを待ち受けて、自分が一番先へ讀んだ。それから其讀がらをわざわざ私の居る所へ持つて來て呉れた。

「おい御覽、今日も天子様の事が詳しく出てゐる」(中略)

「勿體ない話だが、天子さまの御病氣も、お父さんのとまあ似たものだらうな」

斯ういふ父の顔には深い掛念の曇りがかかつてゐた。

(『全集 第六卷』中 四 p.112)

아버지는 비슷한 시기에 병석에 눕게 된 明治天皇의 경과를 자신의 증세와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병세가 나빠지는 듯한 天皇의 소식을 접하자 염려스러운 기색을 나타낸다. 아버지가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天皇의 병세와 함께 자신의 병 또한 위독해지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윽고 天皇의 죽음을 접하는 아버지는 크나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약해져 간다.

崩御の報知が傳へられた時、父は其新聞を手にして、「あゝ、あゝ」と云つた。

「あゝ、あゝ、天子様もとうとう御かくれになる。己も……」

父は其後を云はなかつた。 (『全集 第六卷』中 五 p.114)

앞서 보았듯이 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병석에 누운 明治天皇의 소식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明治天皇이 天皇이기도 하지만 같이 병석에 누운 처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과가 궁금한 것이다. 그리고 天皇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병도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天皇의 병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항상 신문을 구석구석 읽었다. 이 부분은 시대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시대를 대표하는 天皇의 죽음은 그 당시 누구에게나 크나큰 사건이었지만, 특히 明治시대를 天皇과 함께 살아온 <私>의 아버지에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아버지는 같은 시기에 병석에 누운 天皇과 자신의 상태를 비슷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곧 죽음에 가까워져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후 乃木殉死의 사건을 접하고부터 아버지는 나날이 쇠약해져만 간다.

父は時々囁語を云ふ様になつた。

「乃木大將に濟まない。實に面目次第がない。いへ私もすぐ御後から」

斯んな言葉をひよいひよい出した。

(『全集 第六卷』中 十六 pp.141-142)

시간이 갈수록 위독해져가는 <私>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乃木大將에 대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시대를 함께 살았던 天皇과 乃木大將의 죽

음에 큰 충격을 받고 무의식중에 자신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신이 혼미한 순간에 발설한 것이다. 天皇의 죽음으로부터 乃木순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그들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작품이 시대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兩親と私」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에 이어 <私>의 아버지도 상태가 매우 위험해지고 선생의 죽음까지 밝혀진다. 3부 구성 중 가장 짧은 부분인 「兩親と私」에 세 번의 죽음이 등장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죽음도 다루어짐으로써 선생의 자살 이유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은 明治시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나타내는 인물들이고, 그들의 죽음은 역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선생은 <私>에게 혈연적·정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고, 그들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오로지 시대상황의 반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각각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兩親と私」의 작품 속 역할을 주로 시대상황 묘사와 그로 인한 선생의 죽음과 관련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을 시대 상황에 따른 각 세대간의 상계를 일탈한 행위로 파악하는 森嶋邦彦은 「兩親と私」부분을 乃木大將과 <私>의 아버지 세대, K와 선생의 세대, <私>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3 세대로 분류하여, 그들의 공통점으로 「常軌を逸脱した行爲」를 했다고 주장하였다.³⁰⁾ 「常軌を逸脱した行爲」란 「明治の精神に殉死」하는 선생, 병상에 누워서도 乃木大將에 대한 추종을 지껄이는 <私>의 아버지, 그리고 그 위독한 아버지를 남겨두고 상경을 결심하는 <私>의 행위이다. 연

30) 森嶋邦彦 「漱石『こゝろ』序論」 『日本文芸研究』 第15卷, 1980년11월, p58.

애의 비극이라는 작품의 틀을 깨고 소설이 형태를 맺는 가장 동적인 역사적 시간의 단면으로 파악하고, 明治時代の 내실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죽음에 의해 추상화된 시대의 종말을 단언한다고 보았다³¹⁾.

작품은 시대라는 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세대간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각 세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상궤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위독한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私>의 행동은 분명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병을 천황의 병과 같이 생각하거나, 병석에서 천황을 따라 순사한 乃木大將을 추종하는 것이 상궤에 어긋난 일탈 행위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생의 죽음을 상궤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 것은 「中篇の私の父の死の意味は極めて重い。倫理規範として自然に培われた乃木殉死への共鳴は、無垢だという点において尊いのだ。それはそして主人公の殉死として意義付けられた共鳴と基底を共有するものであるといえよう。」³²⁾고 하는 것에 모순된다. 乃木순사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윤리규범으로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바른길」 「상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죽는 행위 자체가 일탈인지, 「明治の精神」에 순사했다는 사실이 일탈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생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이 기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곧 선생의 죽음도 明治시대의 종언을 포함한 의미이지만 그 죽음을 일탈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의 죽음의 행위는 「明治精神」의 의미와 함께, 乃木대장이 35년간 죽으리라 다짐하면서 기회를 기다렸던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明治の精神」이라는 것은 선생이 죽음을 택한 계기이자 하나의 기회였던 것

31) 前掲注 30, p.58

32) 前掲注 30, p.59

이다. 따라서 선생과 아버지의 죽음의 의미는 상궤를 일탈한 단순한 죽음의 행위라기보다 각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선생의 죽음은 타인 불신 이후 세상 밖에서 살아가려 했던 선생도 결국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던 죽음의 결심을 통해 <私>라는 단 한명의 타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리라 결심했던 일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私>의 아버지의 죽음은 작품 속에서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나 明治天皇의 병세와 함께 증상이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스스로가 天皇의 병과 자신의 상태를 똑같이 보려 함으로써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가장 뚜렷하게 암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가족이 모두 고향으로 모여들고, 옛 친구와 친척들 또한 집으로 찾아와 죽음을 함께 맞이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생과 <私>의 아버지는 분명 처지가 틀리지만, 선생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은 <私>가 항상 비교선상에 올리듯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선생과 <私>의 아버지의 죽음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시대상황과 시대의 흐름이라는 공통점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兩親と私」는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先生と私」에서 선생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여 변화되는 <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을 만나고 난 뒤 <私>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아버지와 선생의 비교,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선생의 죽음의 대치 상황에서까지 선생을 택하면서 <私>와 선생의 정신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兩親と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이다. 선생은 그토록 혐오했던 숙부의 행동과 자신의 이기심이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자기불신에 빠진 인물이다. 선생의 그러한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된 것은 「가족」이라는 혈연 집단의 결여로부터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생 스스로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대범한 기질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서에 고백하고 있다. 선생은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숙부에게 맡겨졌으나 재산을 빼앗기고 타인불신에 빠지게 되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다가 신앙에 가까운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친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하다가 자기만의 이기심을 발견하고 절망적인 삶을 이어나간다.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였던 선생은 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다. 「兩親と私」에서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지만 <私>의 가족과 가족관의 관계를 통해, 선생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던 「가족」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こころ』는 明治라는 시대 상황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明治精神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私>라는 청년과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선생과의 관계, 또 그 관계로 인하여 변화된 <私>를 그려나가고자 하였다. 때문에 「兩親と私」는 단순히 시대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私>를 주축으로 하여 <私>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족 간의 관계, <私>와 선생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兩親と私」는 『こころ』라는 작품의 구성요소에서 시대적 상황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상황을 언급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장이다. 이는 선생과 <私> 사이에서 <私>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며,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재분석해 보았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夏目漱石의 후기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こころ』를 <私>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私>와 선생의 관계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고,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유서로써 남기게 된 이유를 <私>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로 시대상황을 나타내는 장치로써 파악되었던 「兩親と私」를 <私>와 선생의 계속되는 관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선생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私>를 통해 선생과의 교제로 인해 변화된 <私>의 모습 또한 살펴보았다. 그리고 「兩親と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을 한데 묶어 시대상황의 상징이라고 파악하는 종래의 논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은 반영하나, 등장인물 각자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

작품 속에서 <私>라는 인물은 語り手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을 진술하고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역할 정도로 간과하여 파악하기 쉬우나, 선생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의 교감이 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私> 또한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과 처음 만났을 당시의 <私>는 혈기 왕성하고 순수한 청년으로, 당시로서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들을 선생으로부터 접하게 된다. 당시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사상들은 <私>에게 신선함을 넘는 새로운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수업이나 교수보다 선생을 높이 평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때때로 선생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된다. 선생의 사상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온 것이었기 때문에 <私>에게는 당연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계속되는 선생과의 만남 속에서 <私>는 선생

의 사상의 뿌리에는 선생 자신이 몸소 체험한 사실이 바탕이 되고 있으리라 짐작하기에 이른다. 이윽고 <私>는 대담하게 선생의 사상을 낱개 한 과거를 숨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앞에 펼쳐 보여 달라고 한다. 선생의 과거를 살아있는 경험으로써 받아들이고 싶다고 요구하게 된다. 선생은 <私>를 다른 타인과 마찬가지로 의심하고 경계했었지만 <私>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하자 처음으로 <私>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선생과 <私>는 처음 만났을 당시의 관계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결국 서로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단 한사람의 타인으로 <私>를 선택하게 된다. 늘 내면에 괴로움과 고독함을 품고 있던 선생은 <私>와의 교제로 인해 K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타인에게 마음을 열었고 죽기 전 단 한사람이라도 타인을 믿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私>는 선생이 잊고 있었던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하고 진지한 모습을 지닌 인물이다. 선생은 <私>를 만났기 때문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私>는 선생에게 일방적으로 사상적인 영향을 받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私>의 역할은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생은 과거 숙부에게 당한 배신으로 인해 인간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친구가 자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조차 혐오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선생의 지식과 사상들은 대부분이 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피어난 것이다. 그의 내면은 타인불신과 자기불신으로 가득 차 그의 부인조차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러나 <私>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이후 서로 변화되어 가면서 자신의 과거를 유서로써 타인인 <私>에게 남기게 된다. 선생은 잊어버렸던 예전 자

신의 모습을 <私>에게서 발견하고 인생 그 자체에서 살아있는 교훈을 얻고 싶다는 <私>의 「眞面目」에 의해, <私>에게 자신의 과거를 유서로써 남기게 된 것이다.

私は其時心のうちで、始めて貴方を尊敬した。あなたが、無遠慮に私の腹の中から、或生きたものを捕まへやうといふ決心を見せたからです。私の心臓を立ち割つて、温かく流れる血潮を啜らうとしたからです。

(『全集 第六卷』下 二 p.154)

위의 인용문에서 선생이 고백하고 있듯이, <私>는 선생이 자기 안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직전에 믿음을 부여하고 선생의 과거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진지한 인물이다. 또한, 선생이 자신의 과거를 유서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생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兩親と私」에서는 시대상황이라는 큰 틀과 함께 「先生と私」에 이어 계속되는 선생과 <私>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변화된 <私>의 모습을 가족관계 속에서 분석해 보았다.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간 <私>는 선생과 비교되는 부모님의 촌스럽고 무지한 행동에서 실망과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고향집의 생활 속에서 선생을 만난 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私>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부모님의 행동이 촌스럽고 무지하게만 느껴지고, 또 자연스럽게 선생과 아버지를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선생의 의례적이고 겉치레로만 들리는 축하 인사를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고향의 부모님을 떠올렸던 <私>이기도 하다. 또 병으로 위독한 아버지를 측은하게 느끼면서도,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의식중에 선생을 연

상하며 가족과 타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이 닥쳐온 순간에 알게 된 선생의 죽음은 <私>를 가족의 곁을 떠나 東京으로 떠나게 하고, 결국 혈연관계를 떨치고 정신적인 관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兩親と私」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과 잇따른 선생의 자살, 그리고 아버지의 위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은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고 그들의 죽음에 이어지는 선생과 아버지의 죽음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죽음을 시대상황의 표출이라는 한 가지 의미로 뭉뚱그려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선생과 아버지의 죽음은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과 같이 明治時代의 종언의 의미로만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明治時代의 종언으로 대표되는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은 선생이 자살하게 되는 계기이며, 내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때를 기다려 오던 선생에게 그 기회를 부여한 사건이다.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이 계기가 된 선생의 죽음은, K의 죽음 이후 세상 밖에서 살아가려 했던 선생도 결국 시대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선생은 죽기 전 약속하였듯이 <私>에게 자신의 과거의 고백을 유서의 형태로 남기게 되었다. 한편 <私>의 아버지의 병세는 天皇의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가고 아버지 스스로 天皇의 병과 자신의 병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작품 속에서 시대 상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선생에게 시대상황은 죽음의 계기가 되었지만 <私>의 아버지에게 있어 시대 상황은 자신의 병세와 동일시되고 있다. 따라서 「兩親と私」에서 볼 수 있는 선생과 아버지의 죽음, 明治天皇과 乃木大將의 죽음은 모두 각각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시대 상황과 흐름이라는 공통점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선생과 <私>의 관계는 「頭」와 「胸」라는 대비로 정리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私>는 선생을 만난 이후 선생의 지식과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단순히 「頭」로 맺어진 관계로 파악하기 쉬우나, 본론에서 검토하였듯이 <私>와 선생이 서로 정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胸」, 즉 서로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관계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私>의 경우에는 선생으로부터 머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은 <私>의 마음으로부터 우려난 「眞面目」에 의해 과거 고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私>와 선생의 관계는 마음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서를 읽고 난 후의 <私>는 선생으로부터 「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かつて遊興のために往來をした覺のない先生は、歡樂の交際から出る親しみ以上に、何時か私の頭に影響を與へていた。たゞ頭といふのはあまりに冷か過ぎるから、私は胸と云ひ直したい。肉のなかに先生の力が喰ひ込んでゐると云つても、血のなかに先生の命が流れてゐると云つても、其時の私には少しも誇張でないやうに思はれた。

(『全集 第六卷』上 二十三 p.64)

위의 인용문에서 <私>는 선생과의 교제는 어느새 머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頭」를 「胸」로 고쳐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私>의 몸속에는 선생의 힘이 깊이 파고들어 있었고 피 속에 선생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는 말로써 「胸」에 받은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피 속에 선생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는 <私>의 말은, 피의 힘으로 인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운 머리로 새로운 것을 말하기보다 뜨거운 혀로 평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선생의 의지가 실

제로 <私>에게 전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생은 자신의 피를 <私>에게 쏟아 부어 <私>의 「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 수 있다면 만족한다는 고백으로써, 다시 한 번 「胸」로 연결되는 서로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私は今自分で自分の心臓を破つて、其血をあなたの顔に浴せかけやうとしてゐるのです。私の鼓動が停つた時、あなたの胸に新しい命が宿る事が出来るなら満足です。 (『全集 第六卷』下 二 p.154)

선생과 <私>의 관계는, 위의 인용문과 앞 페이지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血」「心臓」「胸」「肉」 등의 단어로 상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피는 심장을 통해 「肉」 즉 온 몸에 공급되고 순환하며, 심장은 「胸」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과 <私>를 이어준 「胸」라는 것은 마음, 즉 「心」이다. 선생과 <私>가 서로에 의해 변화해가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心」에 의해서인 것이다. 작품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명이 마음의 한자어를 일본어로 풀어 쓴 「こころ」라는 것은, 선생과 <私>의 관계가 작품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작품명인 『こころ』는 선생과 <私>의 관계를 이어주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以心傳心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으로는

33) 尹一의 논문에서는 선생과 <私>의 관계를 「血」「心臓」「胸」로 상징된다고 하고 있으나, 논자는 심장 등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관계가 「肉」화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尹一 「夏目漱石の『こころ』—Kの死と『心』の問題—」 『日本學報』第59輯, 2004년6월, p.366 참조

전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상대가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음은 내가 상대에게 전하고 싶어도 그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고 전해지지도 않는 것이다. 단순한 語り手로 간주되기 쉬운 인물인 <私>는 작품 속에서 선생과 유일하게 마음을 통할 수 있었던 상대였다.

이상과 같이 <私>라는 인물은 작품 속에서 이야기의 전개와 서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생과의 만남을 이끌어 나가며 유일하게 선생의 마음을 변화시킨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텍스트>

夏目漱石『漱石全集』第二卷, 岩波書店, 1966년.

夏目漱石『漱石全集』第六卷, 岩波書店, 1966년.

<단행본>

竹盛天雄・編『夏目漱石必携』別冊國文學・NO.5, 1980년2월.

宮井一郎『漱石文學の全貌』下卷, 國書刊行會, 1984년.

佐藤泰正『夏目漱石論』築摩書房, 1986년.

松本寛『夏目漱石—現代人の原像』, 新地書房, 1986년.

大岡昇平『小説家夏目漱石』, 筑摩書房, 1988년.

森田草平『夏目漱石』(近代作家研究叢書116), 日本図書センター, 1992년.

江藤淳『夏目漱石』(近代作家研究叢書128), 日本図書センター, 1993년.

石原千秋『反轉する漱石』, 青土社, 1997년.

<간행물>

森嶋邦彦「漱石『こゝろ』序論」『日本文芸研究』第15卷, 1980년11월.

長谷川和子「『こゝろ』論」『日本文芸研究』第33卷2号, 1981년6월.

清水孝純「『こゝろ』-『明治の精神』覺書」『文學論輯』第28卷, 1982년3월.

山本勝正「『こころ』の世界一家の崩壊と人間關係の斷絶をめぐって」

『日本文芸學』第18卷, 1982년3월.

小森陽一「『こころ』を生成する心臓」『成城國文學』一卷, 1985년3월.

佐藤裕子「漱石『こゝろ』の主題と遺書の意識」『日本文芸研究』

第38卷2号, 1986년7월.

石川正一 「『こゝろ』の死生觀」 『星稜論苑』 第18卷, 1994년7월.

竹盛天雄 「『故郷』を清算した男と『故郷』から追放された男の運命」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第42卷6号, 1997년5월.

金美亨 「孤立する『こころ』」 『國文學 解釋と鑑賞』 第62卷6号, 1997년6월.

渡部芳紀 「『こころ』—その舞台」 『國文學 解釋と鑑賞』 第66卷3号,

2001년3월.

尹一 「夏目漱石の『こころ』—Kの死と『心』の問題—」 『日本學報』

第59輯, 2004년6월.

佐藤泉 「『こころ』の時代の特別な正典」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第51卷3号, 2006년 3월.

<한국단행본>

유상희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연구』, 보고사, 2001년.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문학세계』, 보고사, 2001년.

한국일어일문학회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년.

김태연 『夏目漱石小説研究：漱石作品における色と空間』, 제이앤씨,

2005년.

정인문 『일본 근·현대 작가 연구』, 제이앤씨, 2005년.

<한국논문>

오경자 「作品研究 夏目漱石の『こころ』—主人公<先生>の生き方を中心に

—」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Vol. No.1, 1974년.

오경환 「夏目漱石『心』論—自己表現としての自殺—」 부산대학교 인문논총

Vol.33 No.1, 1988년.

김태연 「夏目漱石『こころ』論—他者不信としての故郷と自己不信としての東京—」 경주대학교 논문집 Vol.8, 1996년.

이지숙 「『こころ』에 나타난 <まじめ>의 고찰」 『日本文化學報』 Vol.2, 한국일본문화학회, 1996년.

이미정 「나쓰메 소오세키(하묵수석)의 『마음(心)』 고찰」 『일본근대문학산책』 No.5,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본근대문학회, 1999년.

김정훈 「『나』를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마음』再讀—」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년.

장남호 「『고코로(こころ)』의 성격—『私』를 중심으로—」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년.